

비형식 과학교육기관으로서의 자연사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동향 및 사례

신명경(충북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과학교육관련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과학교육에서의 정규교육 혹은 학교 교육의 한계가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비정규 혹은 비형식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가 과학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온 서구의 예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연사 박물관에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이전의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 사례로서 자연사 박물관 관련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시된 연구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연구 방향 하나는 자연사 박물관 내의 전시특성에 관한 것이다. 어떤 전시 특성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더 나아가 교육적인 의의를 갖게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하나의 연구는 자연사 박물관의 온라인 자료물에 대한 것으로 이는 과학교육적 견지에서 자연사 박물관의 잠재적 학습 효과를 가늠해 보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연구는 방문객의 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시 특성들이 관람자의 행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체험형과 작동형이 단순관람의 형태보다 더 집중적이고 능동적인 관람행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특성을 8가지로 제안하고 이러한 유형별로 나타나는 관람객의 유의미한 관람 행태를 파악하여 전시특성과 관람행태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보다 의미있는 관람행태를 유도해 내기위해 어떤 유형의 전시특성이 강조되어야하는지를 제안할 것이다.